Open Source 공유와 협업의 성공 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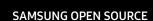
박 수 홍

Ph.D., 그룹장, 삼성전자 오픈소스그룹

Email: soohong.park@samsung.com

Home: http://opensource.samsung.com

Defining of Open Source







Open Source Definition

- 01. Free Redistribution
- 02. Source Code
- 03. Derived Works
- 04.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 0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 0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 07. Distribution of License
- 0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 0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 10.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Development based on the sharing and collaborative improvement of software source code has a history essentially as long as software development itself. In the late 1990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phenomenon increased markedly with mainstream recognition of Linux in publications like Forbes and the release of the Netscape browser's source code.



Since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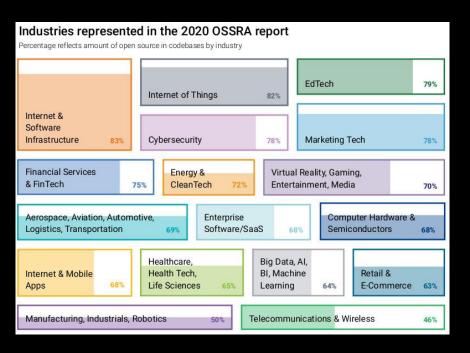




SAMSUNG OPEN SOURCE

Why Open Source in Industry

Open Source is Everywhere



Despite the pandemic and economic downturn, skills in open source continue to be in high demand among employers





of employers report that training existing employees to gain the necessary skills is now the top tactic utilized in 2020.

[Ref: Synopsys 2020 Open Source Security and Risk Analysis Report]

[Ref: Linux Foundation 2020 Open Source Job Report]

Open Source is Innovation

"공유를 위한 진전", 삼성전자 디지털포용성 우수 기업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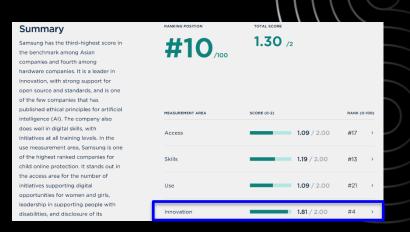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디지털 100대 기업 대상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연합체 WBA 평가, 2020년 12월

*디지털포용성 (Digital Inclusion) 이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구하 고 사회와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최근 ESG 대두와 함께 기업의 주요 가치로 인식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



💋 www.yna.co.kr > 연합뉴스 > 최신기사

삼성전자, 디지털 포용성 평가에서 3회 연속 '글로벌 톱 10' | 연합...

2023.03.14. **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양극화해소 노력' 평가에서 3회 연속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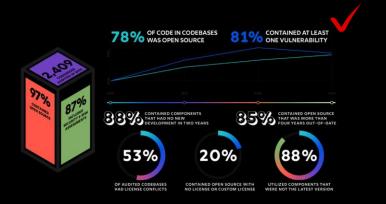
WBA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오픈소스에 대한 강력한 지원, 표준화 선도,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혁신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면서 "인공 지능(AI)의 윤리 기준을 제시했고 테크 분야의 여성 고용성과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친환경, 인권과 다양성 존중, 미래세대 교육, 기술혁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MSUNG OPEN SOURCE

Open Source is Hegemony





Open Source is new biz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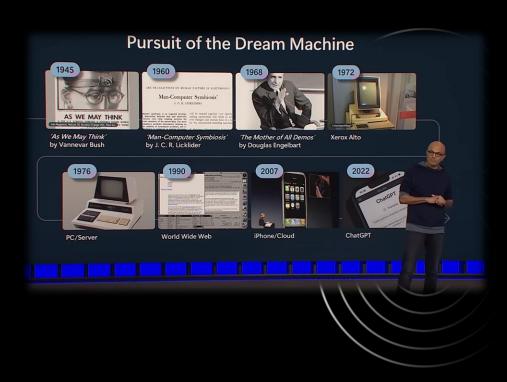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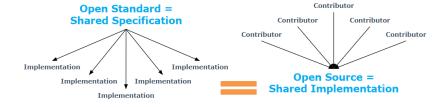




Open Source is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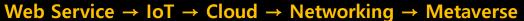


Open Standards Can Make Technology Pervasive



Open standards enable consistency across multiple implementations that can meet the needs of diverse markets and use cases

Open standards often use open source for sample implementations, tools, samples, conformance tests, validator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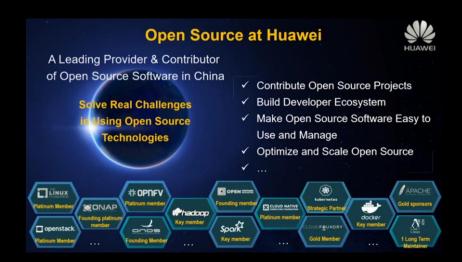


Linux is a cancer that attaches itself in an intellectual property sense to everything it touches.

(Steve Ball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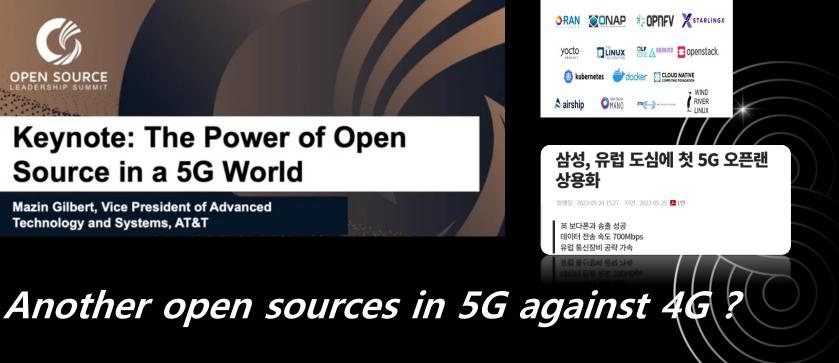
Culture changed ?



Keynote in OSCON 2017







Open Source has more...



CONTENTS

Vol.40 No.5 | MAY 2023

.이헌중 22

학회지 위원회

위원장(상임이사) 김대중(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수용(금오공과대학교) 부위원장(집행이사) 이강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구영(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유두(한국폴리텍대학) 노정훈(금오공과대학교) 부 편 집 장 (이 사) 송유재(금오공과대학교) 마수진(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정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병주(인천대학교) 원 강승택(인천대학교) 김기근(국방과학연구소) 김기형(아주대학교) 김동성(금오공과대학교) 김석찬(부산대학교) 김선우(한양대학교) 김성륜(연세대학교) 김용구(서울미디어대학원) 김용환(KISTI) 김재현(아주대학교) 김재형(㈜유캐스트) 김종원(광주과학기술원) 박광로(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대영(인하대학교) 박홍성(강원대학교)

백용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호선(퀄리아[Qualia]) 석승준(경남대학교) 송용수(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송홍엽(연세대학교) 신석주(조선대학교)

신오순(숭실대학교)

2023년 학술 활동 계획

학술대회/전시회 일정

주제명 : 디지털 전환

.편집위원: 김대중(TTA) 머리말 .김대중 02 기계가독형 데이터 시맨틱 상호운용성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당면과제 정의석 03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ICT 기술표준 특이점(Singularity) 고찰 김대중, 구경철 09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오픈소스 역할과 재해석 . 박수홍_14 신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향 . 정영수 17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동향



오픈소스 하드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데이터 그림 2. 오픈소스의 확장



Beyond Open Source Software



















삼성·LG전자·카카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3만건 공개

송고시간 | 2023-04-26 14:10



한국저작권위원회, 3개 사와 업무 협약…10월부터 무료 서비스



삼성전자 · LG전자 · 카카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표준화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한병국 문화제곡관광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지작관위원회 서울사우소에서 열인 오픈스스 흐프트웨어 라이선스 설보 표준해(오스리 프로젝트) 및 공개 업무명역에서와 오픈스스 흐프트웨어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합업을 위한 합역사에 서명한 한국제작권위원회 병병구 위원장과 삼성한자, LGTA, 카카오 3개사 대표 양환 및 참시포들과 가입 촬영하고 있다. 2022.4 26 [문화제국관광부 제품, 제반에 및 Do RJI) photologinatoda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 이선스 정보 3만여 건을 오는 10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협악'을 맺었다.

삼성전자, 오픈소스 반도체 RISC-V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RISE) 운영 이사회 참여



<u></u> 녹돌이 2023. 6. 1.

여러분은 혹시 RISC-V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 파이브라 읽는 RISC-V는 반도체 설계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로열티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입니다.

이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 줄여서 ISA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PC나 서버에서 쓰이는 x86 아키텍처,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이는 ARM 아키텍처 등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가 함부로 쓸 수 없죠. 하지만 RISC-V는 특정 기업이 소유권을 갖지 않기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것도 로열티 비용없이 말이죠. 덕분에 그 영향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인이 없는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단일 기업이 강력하게 개발을 밀고 나가지 않기에 한계점도 있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과 업체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SAMSUNG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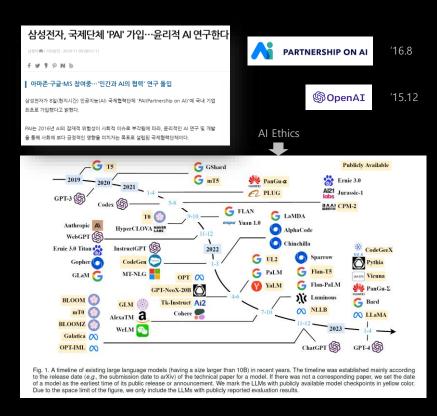
OpenAl Is Not Open Source — But Neither Are Plenty of Other 'Open' Organizations

While OpenAl's name is misleading, the term "open" is ambiguous. Here's why the tech industry needs to clarify what it truly means to be "open" in any context.

Christopher Tozzi | Jun 06, 2023

https://www.itprotoday.com/software-development/openai-not-open-source-neither-are-plenty-other-open-organizations

My point here is that the meaning of "open" is open to a wide range of interpretations. Being open doesn't necessarily mean producing open source software; indeed, historically, the term "open" had nothing to do with open source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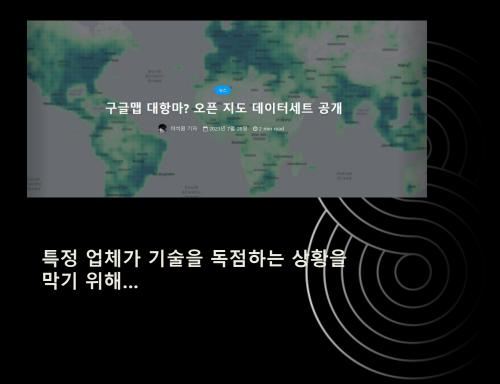


A Survey of Large Language Models, https://arxiv.org/abs/2303.18223



중국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오픈소스(개방형) 반도체 설계 지적자산(IP)인 '리스크 파이브'(RISC-V) 관련

특허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Concluding Remarks



블로그 | 오픈소스 커뮤니티 '뒤통수 쳤다'? 마이크소프트에 대한 변명 - CIO Korea

회사가 그저 이타주의적인 의도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오픈소스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그것이 오픈소스가 자생하고 번창하는 이유이다. 수많은 개발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오픈소스에 기여하며 회사는 이런 개발자들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진정한 평가는 실제로 닷넷을 사용하는 개발자나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닷넷 개발자 커뮤니티가 반발하여 라이선스 익스텐션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정을 번복할 것이다. 다른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사랑'을 유발한 것은 수익이었다. 이번에도 회사는 시장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SAMSUNG OPEN SOURCE